



디지털 플랫폼 정부 ICT 과학, 기술, 혁신

백 양 순

한국ICT융합협회 회장

Manager, Hanyang University
November 4th, 2022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한국과학기술정책학회 KSTAR

Agenda

디지털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ICT
융합 산업

기술 발전은 불가피하며, AI의 발달도 막을 수 없다
미래엔 AI를 지배하는 사람과 AI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AI를 활용한 융합 연구와 교육을 위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산·학·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

Block chain
블록체인

Cloud

CCLOUD

Mobile
5G
6G

부국
富國

AI 인공지능
IoT

Culture
Art

Metaerse
Robot

반도체
Security 보안

Big Data

VR

Industry 4.0

Design Thinking

ICT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 1994년 대한민국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정보통신부'를 만들었다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정통부와 산업

우리나라를 일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민주화, 정보화와 세계화를 강조.
IT 시대 사람이 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됐다
정통부는 출범 직후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와 함께 출범 1995년에 입법돼서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촉진기금도 법제화했다



계미년 2003년 1월 새해아침 (축)

▲우리 IT분야 전문가들에게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새해 인사 덕담을 남겨주곤 하셨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인공지능’ Artificial



Artificial Intelligence·Digital Transformation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제1차 산업혁명

>

제2차 산업혁명

>

제3차 산업혁명

>

제4차 산업혁명

철도·증기기관의
발명 이후의
기계에 의한 생산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 등
대량 생산체계 구축

컴퓨팅,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정보통신시대

인공지능(AI)
공유·플랫폼
데이터 혁명



제 5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ESG혁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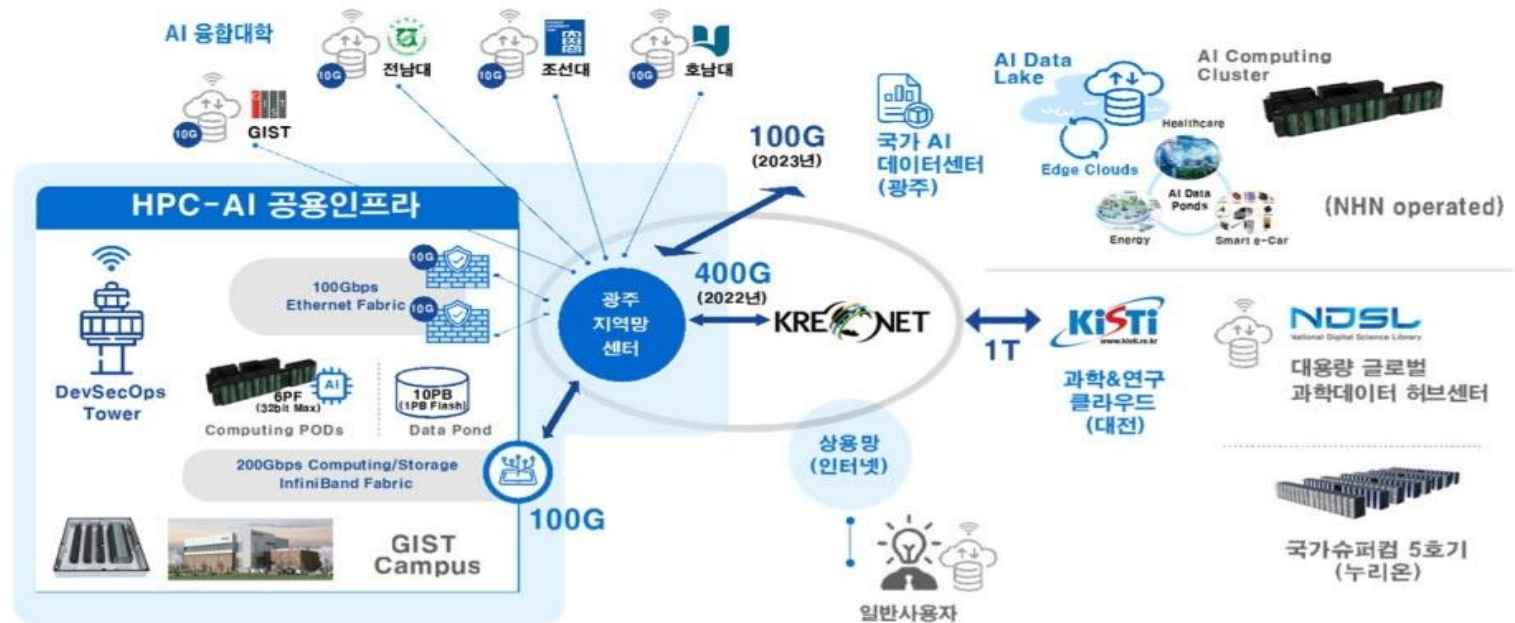
‘ AI HUB CITY GWANGJU ’ 비전 제시

AI산업·미래형자동차·스마트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
AI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



GIST(광주과학기술원)에 '고성능컴퓨팅(HPC)-AI' 기반 공용인프라 데이터센터' 개소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022.10.28)



GIST AI대학원에 구축된 HPC-AI 공용인프라 클러스터



현대차가 고안한 이상적인 미래도시는..."벌집모양·자연중심" 이상적인 미래 도시는...'보행·자연 친화적 벌집 구조' AI시대 사람과 자연이 예술의 향연을 펼치다.

"현존하는 도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사람과 자연, 건축과 모빌리티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렸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동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기능적인 디자인을 녹여내는 작업.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란 최소한의 공간과 에너지로 최대한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의 시너지를 만드는 도시"라며 "이를 위해 도보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공간, 건축물과 융합되는 자동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고, 지형의 차이나 도시의 성장에 맞추어 변형이 가능한 벌집 구조의 도시를 선보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0월 31일 미래 도시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개했다.
 스마트시티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안창욱교수GIST>
 인공지능 작곡가와 협업 '인공지능이 예술의 영역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2022.10.26



디지털을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구축

- 인공지능, AI 반도체 등 6대 분야 초격차 기술력 확보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22~'26, 총 3,018억원) 개발
- 2024년 5G 전국망 완성, 2026년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

디지털 혁신으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

- 대·중견·중소기업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 선박 자율운항 기술 확보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안 등) 구축

‘윤 정부 첫 과제는 ICT 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이 지났다. 첫 내각 구성과 관련해 크고 작은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2년여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로 인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데 대해선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를 풍족하게,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사회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 발표 때 “이제 과학기술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전략무기화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자로, 수소, 5G·6G, 바이오, AI 등 초격차 과학기술 5개 확보)하며, 특히 6G·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맞춰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과학기술 인사 중용 △표준선점·국제협력 등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금 세계는 군사력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핵심 부품이 국가 운명을 주도하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내각 수준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사회학자를 과학기술 자문과 국정 전반에 관여토록 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5G·AI·바이오를 중심으로 기술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글로벌공급망(GVC)을 구축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도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신미국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같은 국가전략·로드맵의 수립과 함께 주기적으로 재점검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신산업 육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에서도 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과학기술선도국가를 목표로 ‘과학 굴기’를 쉴 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국가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전략이 절대적으로 매우 필요한 시기다. 새 정부를 이끄는 윤 대통령이 챙겨야 할 여러 사회적 현안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미래 먹거리로 끊임없이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ICT 분야다. 전 세계가 주목하며 쉼 없이 달려온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융합 ICT가 있기 때문이다. ICT 산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부터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5G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데 이어 ‘차세대 통신기술’(6G)도 한국, 미국 등이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I, 양자암호통신, 위성통신, 스마트공장, 원격의료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6G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ICT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수년간 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와 대기업을 위주의 정책, 정부 주도의 ICT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주저하는 등 ICT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 투자는 필수다. ‘혁신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공약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적극 추진해서 스타트업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ICT 생태계 육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4차·5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중장기 투자 방향 설정, 관련 기술 개발과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정부가 플랫폼과 보안장치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상호 필요로 하는 가치화된 정보를 안전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플랫폼 정부라고도 부른다. 특히 의료, 감염병 관리, 교육, 일자리, 교통, 위치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위기에서 기회 포착...산업 경쟁력 강화·수출 증대 방안 적극 모색’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 현 상황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전 세계적 복합위기...신성장 수출동력으로 돌파’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전세계 교역 둔화로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대응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뤄내고 있다.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비전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회의 방식 그대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께 공개했다.[정책브리핑]

‘AI 선도국가’ 국가전략기술,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을 달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w.msit.go.kr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 :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데이터·서비스 전면개방으로

정부 주도 → 민관 협업 방식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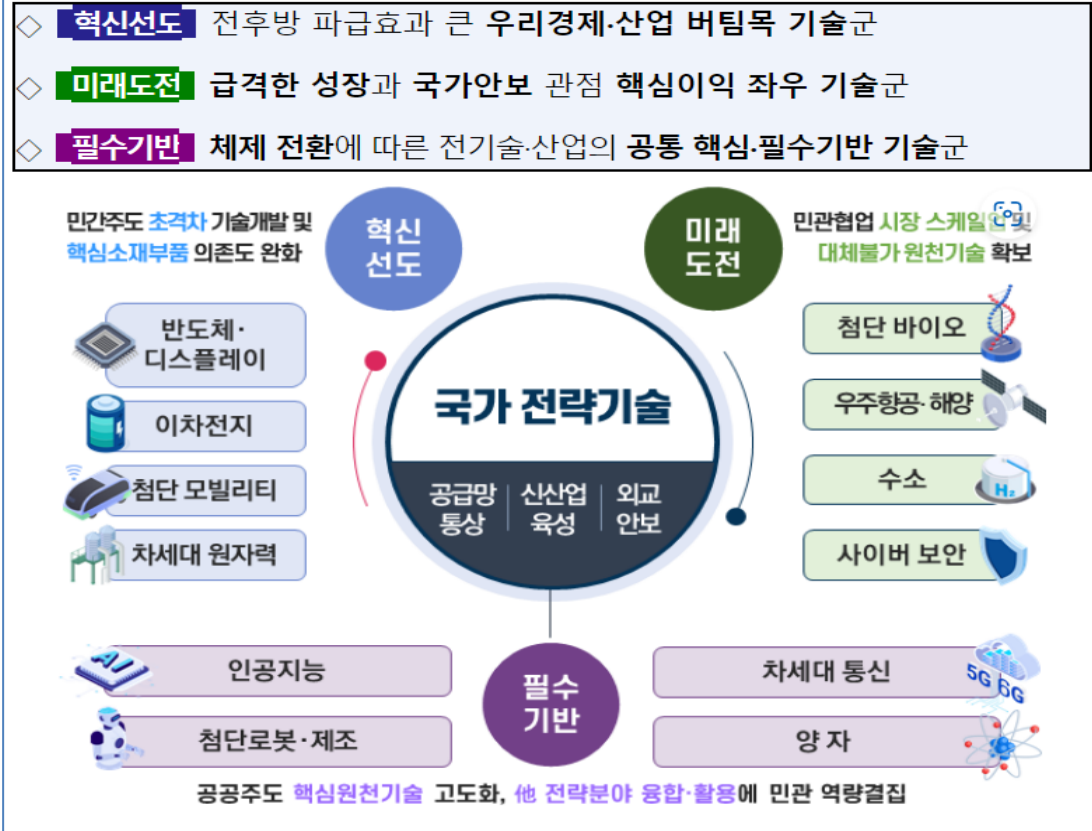
민간 혁신역량
수용 기반 마련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정책 수립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반도체 산업’ Entrepreneurship 起業家(기업가)'정신

"반도체 산업은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전환, AI 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세계 번영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글로벌 환경 변화로부터 우리 ICT 융합산업 전망 - 변화하는 기업 비즈니스 환경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두뇌, 반도체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과학과 기술 이야기라고 하면 컴퓨터나 돈,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기술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ICT시대 ‘사람’이 길이다.

호암 이병철 회장과 이견희 회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반도체 산업’이라는 말을 골라내어,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삼성을 일류 기업으로 키워냈다.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적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를 추구한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 단기적인 손익보다 반도체가 변화시킬 세상과 비전에 집중한 두 사람이다.

1974년 한국반도체 인수부터 1983년 호암의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VLSI) 진출 선언,

‘망할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난 40년의 역사.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 실천국은 한국!

위험(risk)이 있는 새로운 사업(New business)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창의적, 선구적, 모험적, 개척자 정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열정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즉, 창의성(Creativity)과 혁신을 통해, 신념(Credit)과 도전(Challenge)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피터드러커 / 나의 이력서, 2006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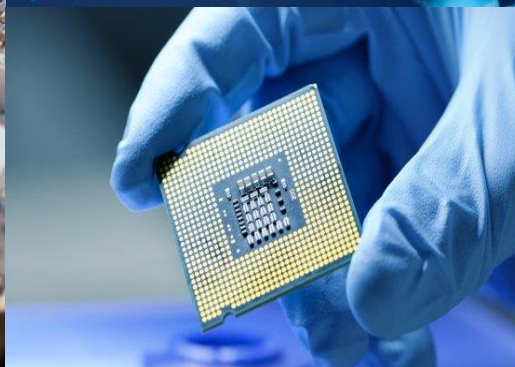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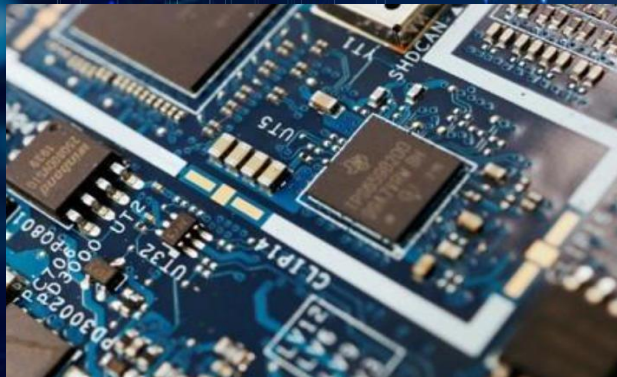
초거대 메타 및 트랜스포머(Transformer)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혁신 허브로 도약하는데 중요하다 경제·산업·기술·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

"반도체 생태계는 한 국가가 만들 수 없어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종 결합' 다양한 첨단 기술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중국은 42개로 '칩4'(한국 미국 대만 일본)에 속한 기업과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5월에 발표한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망 2022(World Economic Forum 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경영진의 48%는 인공지능(AI)이 향후 2년 동안 사이버 혁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이 11개 산업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0대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사이버 보안 문제가 향후 3년 동안 기업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이 범죄자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



시진핑의 말, 바이든의 행동...美中 반도체 경쟁 더 격해진다 [차이나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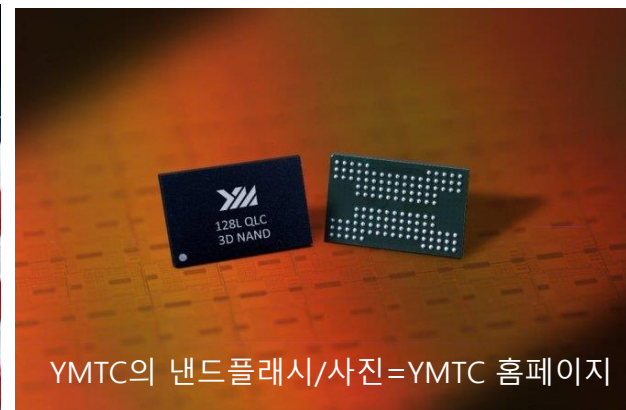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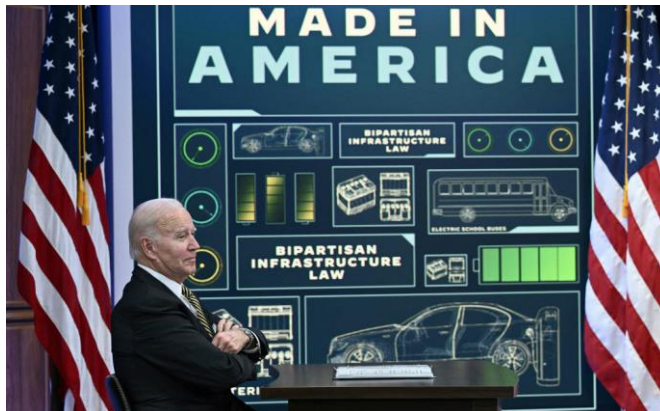
미국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도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강도와 규모는 미국과 중국의 절박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전히 기술혁신이 과학기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대전략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혁신을 위한 추진 동력도 한계를 보이는 셈이다.

현재까지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의 핵심은 미·중 가운데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넘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초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반도체를 무엇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신기술의 가능성과 도전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등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022.10.25/ yeungshik20@naver.com



YMC의 낸드플래시/사진=YMTC 홈페이지

꿈을 달고 날아라. “더 과감하게 도전하라”

“상상해보기(Imagine It)”와 “나열해보기(List It Out)”

SCIENCE + HUMAN 인류 행복의길, 인공지능에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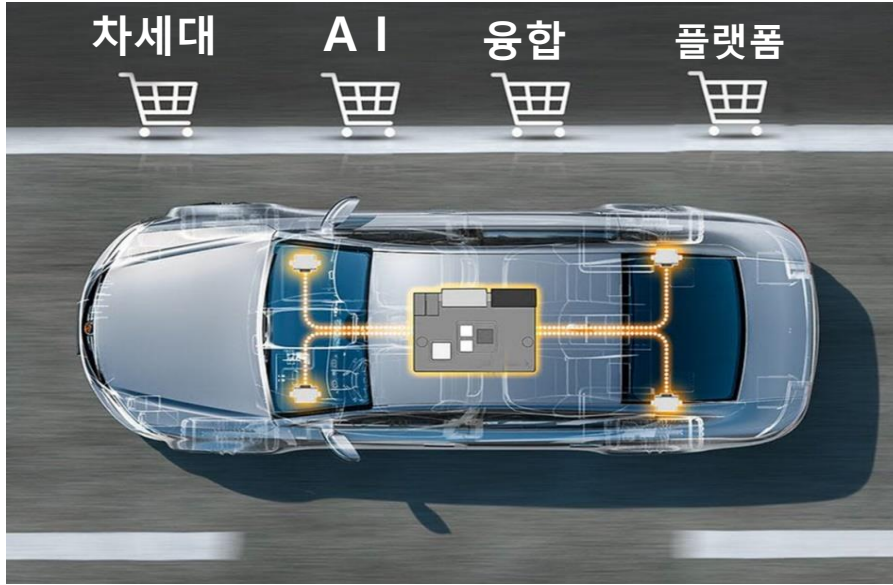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인공지능을 친구로 둬으로써 인간이 더욱 행복해지는 세상,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겨우 한 걸음 내디뎠다.



△ 민간스카이다이버 : 낙하속도 300km 달해... 장관연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한국 산업 Digital 전환. AI산업 선순환 생태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sw)혁명이다.

'지능형 IoT' 교통허브로서 성장

차량 내부 통신 방식 완성차 제조사는 빠른 데이터 통신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기술과 환경의 역사적 대전환기에 대한민국 자동차, 스마트 철도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철도, 데이터로 판단한다...전력 계통 완전 디지털로 전환



공항철도, 신규 차량 9편성 디자인 공개 2022.10.28



메타버스 서비스 사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소셜형 '제페토', 게임형 '마인크래프트', 산업활용형 '가상공장', 경험확장형 '증강도시'

(이미지=네이버Z)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 따뜻한 인공지능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

초고령화

2021년 9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는
지난해 기준 고령자 독거 가구는 **166만 1천 가구**로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35.1%**다.



새로운 도전, 인간 중심 4차 산업혁명 AI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DNA)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 개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초일류 인재로 성장-공존
과학기술 미래를 열어가는 ICT융합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간 뇌와 엔진인 인공지능(AI)
“AI는 모든 산업을 관통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
(human relation . 人間關係), 대인관계 지적능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단어

‘Mother(어머니)’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가진 ‘창조’능력은 갖추지 못한다.

인간은 미래의 ‘생명자본’

주의시대

삶의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I Want to Live a Happy Life



행복교육을 실천하는 창의융합교육

- ♪ 디자인 싱킹 → '관찰, 공감, 협력을 통한 영감(Inspiration)과 통합적 사고(Ideation)를 통해 최선의 답을 얻어내는 과정(Implementation)'
- ♪ Arts(인문학), Business(경영학), Law(법학), Economics(경제학)의 학문을 연계한 창의융합교육의미.
- ◎ 창의(Creativity). 협력(Collaboration). 믿음(Belief). 신뢰(Trust). 연결(Connector)
= 도전 (Challenge) 가치창출 (Value Creation)=
- ◎ 융합형 新 제조업 창출 - IT·SW 기반 공정혁신-제조업과 IT·SW, 서비스, 他 산업과의 융복합 확산, 3D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등 새로운 생산방식의 스마트화 추진
- ◎ 'Connector' AI(인공지능)반도체 ICT 융합
- ◎ 빅데이터 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응 IoT(사물인터넷)
☆ 정부 및 공공기관 ICT 융합기술 기반의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 문화.산업융합 콘퍼런스, 포럼, 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한 글로벌 신시장 개척
- ◎ 디자인 싱킹은 '예(Yes)' 또는 '아니오(No)'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두 가지 대답이 가지는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 즉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

인공지능과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ICT 융합기술 Outsourcing Business

향후 20년 세계 질서 전망

• 미국

- 에너지(셰일오일&가스) 자립
- 식량 자립
- 초일류 군사력(전세계적 해상작전 가능)
- 초일류 교육 시스템
- 인터넷, 모바일, SNS, 암호화폐, 디파이 등 미래 산업 주도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 중국

- 세계2위 에너지 소비국,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고심
- 우크라전쟁, 중국 식량안보에 치명타
- 시진핑 1인 독재 전체주의 - 혁신 역량 약화
- 해외 교역로 자력 확보 미흡 (해군 해외 작전력 미흡)
- GDP대비 부채비율 336%



ConsenSys and Blockchain Economy Center held an MOU ceremony at GIST. [July 22nd, 2019]

인공지능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3위,
디지털 인프라 1위 추진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_ 9.28.

“카카오.IDC(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핵심기반 시설 지정”

카카오 자주 발생한 트래픽 과부하는 대비했지만 화재에 따른 전원 공급 중단은 예상하지 못했다.

127시간30분이라는 역대 최장 시간 장애로 기록된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로 센터 하나가 통째로 셧다운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안철수 의원은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카카오 먹통사태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카오뿐 아니라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은 각종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도 더욱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플랫폼 국감’... ‘카카오 먹통’

‘디지털 정전’ 사태 원인, 초동조치, 매뉴얼, 피해보상 논의,

(2022.10.15.화재)



‘카카오 먹통’ 사태 주요 후폭풍

피해 보상 문제

- 카카오모빌리티 이용 택시기사, 카카오톡 특채널, 쇼핑 등을 활용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 증권가는 카카오 손실 규모를 200억원 안팎으로 추정

법·규제 필요성 제기

- 정부, 데이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립
- 여야, 한목소리로 입법 차원의 재발 방지책 추진 의지 강화
- 조승래 의원 17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계열사 주가 영향

-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주가 폭락

국정감사 이슈

- 국회 과방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성하 SK(주) C&C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괄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꿈꿀 수 있는 용기 !!
사랑할 수 있는 용기 !!

KIETA
한국ICT융합협회
Korea ICT Convergence Association

E-mail: bys877@gmail.com

<http://www.koreaict.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5, (여의도동)

Thank You!